

부르디외의 ‘자본’ 유형을 적용한 사회과 교과서 내용 분석

장진아 · 남상준 · 권정화

서울은정초등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I. 서론

시민교육으로서 사회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이 현재 또는 미래에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의 중요성을 인식한 피에르 부르디외(Bourdieu.P)의 ‘자본(Capital)’유형을 적용하여 사회과 교과서를 내용분석방법으로 살펴보고 한다. 부르디외는 구조와 행위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통해 교육에서 사회적 실천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그는 마르크스처럼 경제적 영역에 자본을 한정시키지 않고, 사회적 경쟁에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모든 에너지로 파악함으로써 사회양상을 다차원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다. 사회과 교육을 통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의문을 제기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 길러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위치한 사회구조, 자본유형과 그 속에 담겨있는 특정 이데올로기, 이들이 녹아서 반영되어있는 교과서 -학습자의 신념, 가치, 행동양식에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는 사회과 교과서-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II. 부르디외의 ‘자본(Capital)’ 개념과 교과서

부르디외는 구조와 주체에 대한 기본의 관념을 재고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실천의 자율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인다. 그는 실천에 관한 이론(praxeology)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아비투스(habitus)’라는 개념을 사회구조(즉 장)와 개인의 행위(즉 실천) 사이의 인식론적 단절을 극복하는 매개적 메커니즘으로 보면서 인간의 행위(실천)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실천을 이끌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서 구조를 상징하는데, 이를 가능성의 장(The field of possibility)라고 할 수 있다. 부르디외가 언급하는 장과 사회공간이 바로 가능성의 장으로 파악되며, 사회공간이 기존의 사회구조와 다른 측면은 사회공간은 정적인 구조가 아닌 자본(Capital)의 축적과 증대를 위한 역동적인 공간으로 본다는 점이다. 사회공간은 체화된 자본에 근거한 행위자들의 지각(perception)을 자신의 구성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 사회공간 상의 위치를 특징짓는 사물이나 관념들 간의 차이와 간격은 행위자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지각되고 평가되는 한에서 변별적인 기호들이 된다.

자본(Capital)이라는 것은 돈이나 공장 등 생산수단의 개념에만 한정되는 것일까? 오늘날 자본의 개념

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와 문화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지식, 과학, 문화 등이 가치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상하면서 고전적 자본의 개념으로는 더 이상 사회현실을 해석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되었다. 자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부르디외로부터 시작되었다. 부르디외는 마르크스의 경제적 결정론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권력(Power), 경제적 자산(Prestige), 문화적 위광(Prestige) 등 세 가지 차원을 강조하는 중층적 관점을 제시한 베버의 시각을 받아들였다.

여기서 부르디외가 사용하는 ‘자본(Capital)’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경쟁에서(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Bourdieu, 1991). 마르크스가 자본을 경제자본으로 한정된 것과 달리 사회변동의 양상을 경제적 갈등과는 다른 다차원의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과거에는 ‘자본’이라고 하면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설명되어 왔으나 부르디외는 경제학이론에서 인식하는 자본의 형태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형태의 자본까지 다시 설명해야 사회세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변동을 살펴볼 수 있다고 본다. 경제학 이론은 은연중에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명품인 실천 경제에 대한 정의 속에서 자본을 규정해왔다. 즉 교환의 영역을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지향하는 상업적 교환의 세계로 축소시킴으로써 다른 형태의 교환들은 비경제적이고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학 이론은 대부분의 물질적 자본이 비물질적 형태의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 형태로의 변환이나 그 반대로의 변형이 일어나는 교환의 형태들은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왔다는 것이다(Bourdieu, 1986).

부르디외는 이 자본을 다시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관계자본)’, 그리고 ‘상징자본’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란 개인이 체화-체득한 교양 또는 교육을 의미하고 문화자본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① 육화된(embodied) 문화자본: (아비투스도 개념화 되는) 지속성을 지니는 신체적 성향이나 습성의 형태. 즉, 지식, 교양, 기능, 취미 감성 등; ② 객관화된(objectified) 문화자본: 그림, 골동품, 책, 도구, 기계와 같은 문화적 재화(상품)의 형태; ③ 제도화된(institutionalized) 문화자본: 제도화된 상태, 즉, 학교 졸업장(학력) 등으로 표현되는 것; 부르디외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문화자본의 획득, 양도, 전환, 사회적 효과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진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점유 또는 특정 집단에의 소속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은 위의 세 가지 자본들이 정통적으로 승인된 형식 즉 위신·신망·존엄·명예·명성 등을 말한다. 이러한 자본은 개개인이 상이하게 소유하고 있으며 자본의 양과 구성방식에 따라 사회공간이라는 위치 매트릭스의 한 지점에 있게 된다(김현미, 1997).

부르디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개념정의, 개념 재해석, 주류 문화의 생활양식이나 소비행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된 부분이 대부분이다. 부르디외는 교육과정과 그 결과물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문화이며, 실제로 교육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교육과정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권한의 주체가 어디이며, 누구의 영향이 작용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분권적 체제로 교육과정의 결정권이 지방의 교육위원회나 학교의 교사가 중심이 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중앙집권적 체제로 그 권한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는 학교를 통해 국가와 특정 집단의 이념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유하고 있는 제도화된 상징적 자본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학교 지식을 대표하는 교과서의 지식

내용 구성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과 교과서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있지만 한국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미래사회의 삶을 준비하는 교과서라고 교육과정에서 명시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특히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사회과의 핵심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으며 교과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집단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가정적 배경, 언어 그리고 능력을 충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키우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서로 다른 이해관계, 관점, 해석과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사회 교과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어떻게 교육과정으로 조직되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학교 밖의 사회 지식이 학교 안으로 제도화되어 들어오는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화는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방식 일체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교과서는 이 가운데 정수에 해당하는 요소만 정선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 교과서에 실린 문화는 곧 지식이 되며 다시 말해 문화적 지식이 된다. 문화적 지식은 한 사회 속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사회적 맥락과 무관한 보편적, 절대적 지식과는 구별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되는 문화의 정수는 교과서로 텍스트화 되면서 어떤 부분은 국가 기관의 개입으로 학교 지식의 구성에 포함된 집단의 이익이나 이념이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교육내용을 아동의 경제적·문화적 환경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의 시작이다. 교과서를 매개로 사회를 만나는 아동들은 사회과 학습을 통해 대중매체나 직접 마주치는 사회현상들의 내용과 의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의미를 발견하며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문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이유는 첫째, 문화는 일상생활의 내면화된 의식체제이고 가치체제가 되기 때문이며 둘째, 지배계급이 문화전달을 통해 특정문화의 형태를 유지·존속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개인이 습득한 문화형태는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가정적 배경, 언어 그리고 능력을 가진 아동들이 모여 있다. '아동 개인의 자유 존중'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표방하면서도 인간의 가치가 경제적 성취로 환원되는 신자유주의의 시장의 원리가 교과서에 녹아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문화가 모여 있는 학교에서 특정 문화가 인정되고 권장됨으로써 그 문화가 재생산되고, 이것은 계급과 계층의 재생산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부르디외의 관점이다. 재생산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재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재생산이다. 사회적 재생산은 '사회자본', 즉 경제력과 권력의 세대 전수로 가정의 경제적 특성과 재화 및 권력 구조 내의 위치가 자식세대에 전수되는 것을 뜻한다. 문화적 재생산은 문화자본의 세대 전수로 가정과 학교에서 갖게 되는 제반 경험과 생활양식이 전수되는 것을 의미하며 부르디외는 교육과정을 문화적 재생산의 도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장(field/場)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현택수, 1998).

부르디외는 현대사회에서 장의 개념을 분석적으로 구성하여 설명하는 데 이러한 사회적 장을 통해 학생들은 기본적인 인지적 습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1]을 보면 부르디외는 관행화한 일상적인 사고, 인식, 평가의 틀을 독사(DOXA)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독사의 특성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사회의 경계를 자연적인 생활세계 속에서 드러낸다는 점이다. 그는 지배적 문화(주류문화)의 규정된 공식적 세계이자 대부분 변론을 가지고 체계화 되어 있는 오소독시(ORTHODOXIE)와 반면에 헤테로독시(HTERODOXIE) 즉,

비지배 문화이자 하위문화는 결국 ‘자본(Capital)’의 소유에 따라 사회의 장안에서의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교육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전달의 구조화된 제도화 과정은 외형상 공정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주류 자본을 가진 계급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이고 평등한 장치로 인식되고 있는 시험이나 평가의 과정은 문화자본이 풍부한 아동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렇지 못한 아동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르디외의 이론이 교육과정의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교과서의 주된 특징을 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시켜 분석할 수 있는 학문적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특정 문화를 주류로 구조화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아동은 이를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고 이러한 사회질서를 재생산하는 상황에서 소수 혹은 비주류의 문화나 입장이 소외되는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혹은 특정 세력이 의도한 문화를 주류로 이끔으로써 위계화 된 기존의 사회질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아비투스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지각, 성향을 나타내며, 어렸을 때부터 후천적으로 체화된다. 아비투스스는 사회적 표현기제이며 국가교육과정 안에서는 교과서 속에 존재하는 여러 자본들을 습득하여 학업 성취에 모든 것을 전념하게 하여 학력을 얻어 쓸모 있는(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상징권력을 얻게 된다. 교과서 속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자본을 가진 학생들은 학업성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라도 전반적인 결과는 개인의 능력이 부족함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를 문화적 결핍으로 해석하여 마치 모두가 동일한 문화를 가져야 한다는 정당성을 강제하는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부르디외는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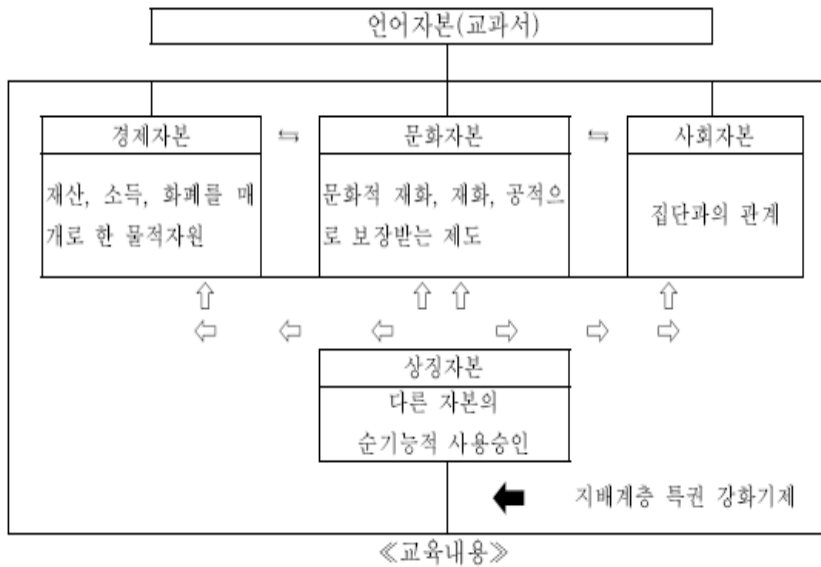
[그림1] 교육의 장과 인식의 일상적 구조(Müller, 1986; 현택수, 1998 에서 재인용 및 재구성)

Ⅲ. 부르디외의 관점에서 사회과 교과서 바라보기

1. 부르디외의 ‘자본(Capital)’ 유형으로 사회과 교과서 분석하기

부르디외(Bourdieu, 1998)는 학교에서의 자본 유형을 말하면서 특히 언어자본의 개념을 설명하며, 이는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의 자본들이 언어화되어 지배계급의 자본의 유형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자본은 그 크기와 종류들이 비주류의 문화와 상대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편성됨으로써 재생산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개개인이 지니는 언어자본, 즉 언어자본이 명시화 되어 있는 교과서에 나타난 학교지식은 실제 교육이 요구하는 언어능력과 실제의 언어능력사이의 격차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본시장의 자유주의적 개념과는 상충되는 생산물들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학교교육에서 계층 권력과 연결시킨 그들의 입장 즉,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전달은 네 가지 자본유형이 언어적 형태를 하고 있는 교과서 내용을 일부 구성하고 있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의 형태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지배계층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이 주류의 문화를 재창조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부르디외의 입장을 통해 학교교육의 대표적인 수단이자 학습자의 지식, 신념,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과 교과서 속에 자본의 유형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와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중심으로 부르디외가 언급한 자본의 유형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2] 부르디외의 교과서 내 자본 유형(Bourdieu, 1998 에서 재인용 및 재구성)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부르디외가 제시한 네 가지 자본유형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국가지배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이종원, 2005)의 이념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개념(Paulet, 1998; 김종명 역, 2006)들 중에서 교과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표 III-1>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III-1> 사회과 교과서 분석 모형

자본유형	개념(Bourdieu, 1991)	교과서에 내재될 수 있는 지배이데올로기적 자본내용
경제자본	-금전, 토지, 노동, 수입 등의 경제적 재화 -재산, 소득과 같은 화폐를 매개로 하는 모든 물질 자원 형태 -소유권 형식	-경제발전/개발 강조 -국가주도 산업화 -자유무역, 시장경제 역할 중시 -기업우선정책 -저축 등 경제활동 강조
문화자본	-지속성을 지니는 신체적 습성 -그림, 문학, 유적, 악기 등 객관화된 형태 -학력, 자격증 등 획득하는 제도적 문화 -위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교사가 보상하는 일반적인 기능, 습관)	-문화(독서, 뮤지컬, 공연 등)에 대한 경험 강조 -(고급)문화 예술 우수성 중시 -제도화된 자본을 통한 지식의 전달 -정보화 사회의 능력 개발
사회자본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망 점유 -특정집단내의 소속 -여가활동을 통한 타인들의 자본관계 유지 -사교조직, 클럽, 동창회 등에 함께 할 수 있는 특정 기질이나 능력	-사회생활에서 자유의 보장을 통한 경쟁 유발 -지구촌, 세계화, 국제화 등의 용어 강조 -준법, 안정 등의 능력 강조 -시민사회의 갈등의 부정적으로 인식, 안정추구
상징자본	-권위와 명예 등의 의례적인 성질, 신뢰도의 척도 -표면상 은폐되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일부 사실을 과장하게 해석하거나 강조하여 서술하여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의 자본을 확대·발전시키는 경우 -문제나 특정 사실을 숨기거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것, 충분한 언급 및 설명을 누락하거나 쟁점 부분을 누락시키는 것과 같은 축소·은폐의 경우	-성장과 발전에 대한 확대·발전 그 이면에 대한 축소 -시장논리에 따른 수월성, 효율성 중요시 인식, 시장경제의 문제점 축소 -국가의 준법, 안정 강조, 국가권력의 지나친 확대나 지도층의 부조리, 안정의 강조로 발생하는 문제 축소 -세계화, 무역 강조, 지구촌 통합 중시, FTA의 쟁점, 세계화의 부정적인 면 축소

(Paulet, 1998; 이종원, 2005 에서 수정 및 재인용)

2. 분석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부르디외의 Social practice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과 자본(Capital)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자본유형에 따른 사회과 내용분석틀을 기준으로 제7차 사회과 교과서와 2007 개정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자본의 경우 제7차 사회과 교과서 5학년 2학기의 대부분의 단원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었으며 경

제발전의 중요성과 자유무역, 시장경제의 역할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높았다. 2007개정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6학년 1학기 2단원에 나타나고 있었으며 경제생활 속의 자유와 경쟁의 이점, 시장 경제,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의 편리를 강조하는 부분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경제 자본 내용서술을 살펴보면, '경제 위기의 극복과 성장' 관련 서술에서 제7차 교과서에서는 경제 위기에 대한 언급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국민의 노력(예: 금모으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서술했다면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경제 위기의 원인부터 서술을 시작한다. 경제위기를 겪던 시기의 국제정세 흐름과 '정부가 외화관리를 잘 못하거나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을 다시 가져가면 외화보유액이 줄어들게 되어 나라의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와 같은 서술이 추가되었다. 주제(3)에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환경문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 빈주거차 문제, 노사 갈등문제)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한 앞의 두 주제에 비해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문화자본의 경우 제7차 교과서에서는 제도적 자본을 활용한 지식의 전달 서술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정보화 사회의 능력 개발에 관한 내용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정보화 사회' 관련 내용의 비중이 높았으며 정보화 사회의 장점과 그 이면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었다(예: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기술의 두 얼굴, 정보사회의 특징/정보사회의 빛과 그림자).

사회자본의 경우 제7차 교과서에서는 지구촌, 세계화를 언급한 단락의 비중이 높으며, 사회생활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경쟁의 이점은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7차 교과서에서 그동안 외면되어 왔던 개발, 확장위주의 국토개발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한 것은 다소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2007개정 교과서에서는 지구촌, 세계화, 국제화를 언급한 단락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최근 법교육 강화방향이 반영되어 (3)생활 속의 법이라는 단원이 추가되어 준법, 안정 등의 내용요소 비중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사회생활에서 자유의 보장에 관한 서술은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문제 서술에서 '세계 인구의 1/4이 세계자원의 2/3을 소비하고 있다', 남반구의 가난한 사람들은 1인당 자원의 이용량이 매우 적으며, 북반구의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1인당 자원이용량이 훨씬 많다'와 같이 기존과 다른 관점의 서술이 추가되었다.

상징자본의 경우 특정 이념을 가진 집단의 자본을 확대·발전하는 경우, 혹은 특정 사실을 축소·은폐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제7차 사회과 교과서는 세계화와 국제화와 관련된 상징자본, 성장·발전, 시장논리, 준법과 안정의 순서로 차례대로 비중이 드러났다. 2007 개정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성장 & #8228; 발전의 경우 확대/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서술과 다른 관점의 서술이 골고루 포함되었으며,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관련된 내용요소가 가장 많았고, 준법과 안정능력의 강조, 시장논리에 중점을 둔 비중이 그 다음을 이룬다. 이 결과는 <표 III-2>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 교과서별 자본유형 비중(%)

자본 유형	자본내용요소	제7차 사회과 교과서		2007 개정 사회과 교과서	
		단락 수	비중(%)	단락 수	비중(%)
경제 자본	-경제발전/개발 강조	13	2.63	7	1.04
	-국가주도 산업화	4	0.80	5	0.74
	-자유무역, 시장경제 중시	10	2.02	21	3.13
	-기업우선정책	2	0.40	5	0.74
	-저축 등 경제활동 강조	6	1.21	4	0.59
문화 자본	-문화에 대한 경험 강조	5	1.01	0	0
	-(고급) 문화 우수성 중시	5	1.01	0	0
	-제도화된 자본을 통한 지식의 전달	15	3.03	0	0
	-정보화 사회의 능력 개발	8	1.61	5	0.71
사회 자본	-사회생활에서 자유의 보장을 통한 경쟁 유발	5	1.01	16	2.28
	-지구촌, 세계화, 국제화 등의 용어 강조	7	1.41	24	3.58
	-준법, 안정 등의 능력 강조	2	0.41	23	3.43
	-시민 사회의 갈등 부정적 인식	1	0.20	0	0
상징 자본	-성장·발전 확대/축소	13	2.63	0	0
	-시장논리 확대/축소	5	0.74	19	2.84
	-준법·안정 확대/축소	2	0.40	20	2.98
	-세계화·국제화 확대/축소	5	0.74	13	1.94

3. 사회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를 통해 사회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과 교과서가 학생들의 지식, 신념, 가치 등의 행동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르디외의 자본(Capital)유형으로 사회과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사회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주의(사회)와 실존주의(개인행위)의 단면을 넘는 사회적 실천의 동력인 ‘아비투스’라는 관점을 제공한다. 부르디외가 사회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에너지인 자본(Capital)을

이야기 하면서 마르크스가 자본을 경제자본에 한정된 것과 달리 사회변동의 양상을 경제적 갈등으로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변동의 양상을 다른 차원으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자본유형으로 사회과 교과서를 들여다보는 것은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에 구조를 부여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요구와 일방향적인 의도가 숨어있는가를 의식하게 해줌으로써, 개인이 직면하여 새로운 사회적 행동의 유형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사회적 구조를 창조하고, 개인의 의식을 확대하는 이러한 특성들을 각각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비투스도 결합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실천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각각의 자본이 다르므로 특정 가치나 문화를 주류로 강요하는 것은 일방향적인 상징폭력이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단면, 주류(특정)문화 중심, 사회과 교과서는 교육 본래의 가치와 상충되는 특정 상징자본이 녹아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제7차 사회과 교과서와 2007개정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자본의 유형 속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내용요소가 세계화, 자유 시장 경제, 정보화 관련 내용이었다. 내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그 속에 녹아있는 자본이 부르디외가 언급한 것처럼 이를 바라보는 특정 관점이 확대되고 어떤 관점은 축소되는 자의적인 선택의 과정이 계속 된다면 학습자의 사회적 실천 역시 그 구조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오인과 순응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라보는 주체의 위치와 관점에 따라 사회현상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과서의 자본유형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 인간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는 시장의 원리가 교과서의 바탕을 이루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아비투스를 인정하고 새로운 구조를 창조할 수 있도록 여러 자본(capital)의 긍정적인 발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구조적인 문제를 은폐하고 개인의 노력부족으로 의식을 전환하여 각자 능력에 맞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살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이 부르디외가 말한 특정 자본들의 힘이다. 교과서 속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자본을 가진 학생들은 학업성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라도 전반적인 결과는 개인의 능력의 부족으로 귀결된다. 아비투스가 교과서 속에 존재하는 일방향적인 자본들을 습득하여 학력을 얻어 쓸모있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을 기르려 하는 상징권력을 얻게 된다. 문화적 차이를 문화적 결핍으로 해석해 마치 모두가 특정 문화를 가져야 한다는 정당성을 강제하는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과서를 매개로 사회를 만나는 아동들은 사회과 학습을 통해 대중 매체나 직접 마주치는 사회 현상들의 내용과 의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의미를 발견하여 문제를 판단하고,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IV. 결론

부르디외는 우리가 구성하는 시각의 원리를 변형시키려는 시도는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사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형성할 것이라 말한다. 행위자들이 자신의 사유와 행동의 범주에 대해 그들 내부에 있는 사회적인 것을 의식할수록 그들 안에 있는 외재성에 의해 행동하게 될 가능성은 적어진다. 그는 우리와 제도 깊숙한 곳에 기입되어 있는 사회적 무의식을 밝힘으로써 우리의 실제 행위를 구속하고 이끌어 가는 이 무의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한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문화는 일상생활의 내면화된 의식체계이고 가치체계가 되기 때문이며 어렸을 때 개인이 습득한 문화형태는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학교, 그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교육 내용은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된다. 사회과 교과서는 한 사회의 가치나 이념을 가장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전달해주는 도구이다. 교과서는 학생활동의 주 자료 이면서 학생들의 지식, 가치,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과 교과서를 부르디외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자본의 유형 속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내용요소로 세계화, 자유 시장 경제, 정보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에 녹아있는 자본을 통해, 이를 바라보는 특정 관점이 확대되고 어떤 관점은 축소되는 자의적인 선택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학습자의 사회적 실천 역시 그 구조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오인과 순응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현상은 바라보는 주체의 위치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과서의 자본 유형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김현미(1997). 인간의 행위와 공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혜숙(2002). 중학교 사회과목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지배이데올로기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2005). 국가의 정치적 목적 실현 수단으로서 교육과정. 초등교육연구논총, 제 21권 제1호, pp283-298.
- 임고은(2012). 문화자본이 사회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원순(2003). 사회적 실천 중심의 사회과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택수 외(1998).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의 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
- 홍성민(2004). 피에르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이론과 현실의 비교정치학. 서울: 살림출판사.
- Bourdieu, P.(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trans. R. N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rdieu, P.(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최종철 역(199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서울: 새물결.
- Bourdieu, P. & Passeron J.(1970). La Reproduction, Paris: Minit, 이상호 역(2000). 재생산. 서울: 동문선.
- Bourdieu, P.(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translated by G. Raymond and M. Adamson. Cambridge: Polity press. 정일준 역(1995).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서울: 새물결.